



타운하우스 전세사기에 6명 '날벼락'

경찰, 보증금과 공사대금 등 22억 가로 채 50대 구축 소유자인 신탁회사 동의없이 은행 대출금 주택 계약 세입자 거주 주택은 공매 넘어가 추가 피해 우려돼

제주지역에서 수십억원의 은행 대출금이 낀 타운하우스를 무단으로 임대해 세입자를 모집하고 전세보증금을 탕진한 50대 건설업자가 구속됐다. 또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이 공매로 넘어가면서 피해자들은 한순간에 길바닥에 나왔게 생겼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50대 건설업자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제주시에서 신축 중인 타운하우스 9채를 시세보다

10%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겠다고 유혹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전세·연세보증금 등 약 15억원을 받아 가로챘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내부 인테리어 비용 등 공사대금 7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타운하우스는 부동산 담보 신탁으로 수십억원의 은행 대출을 받고 지은 것으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지만 A씨는 무단으로 피해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현행법에 따라 신탁회사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을 임대하려면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대출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이처럼 신탁회사 소유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은행 대출금이 끼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따로 떼서 봐야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 중에는 제주도민도 있으며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7억원을 떼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돈을 개인 채무를 갚는데 쓰거나 도박으로 탕진했다. A씨가 전세보증금을 모두 탕진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집은 공매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전세로 살던 주택이 사고로 공매에 부쳐졌을 때 전세보증금은 변제 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린다. 가령 전세보증금이 5억원, 은행 대출이 4억원인 주택이 5억원에 낙찰됐을

경우 세입자는 1억원만 건질 수 있다. 더구나 피해자들 주택은 전세보증금보다 은행 대출금이 더 높게 설정돼 있어 공매에 넘어갈 경우 한 푼도 못 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데도 A씨는 "입주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속여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피해자들은 A씨 말을 믿고 입주했지만, 내장재 마감 등 약속했던 공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로 다른사람 명의로 바꾸고 6개월 간 도주 행각을 이어가다 지난 달 말 경기도에서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떼어 부동산 신탁 여부를 확인하고 신탁부동산이라면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해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가 8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희만기자

“여성들의 일이라고 가치없다 하지 말라”

교육공무직 여성의 날 회견

오는 31일 신학기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8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이 낙후된 성인지 감수성으로 사회적 성별 임금 격차를 촉발하고 있다”며 정당한 노동 가치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제주지부는 “조리, 청소, 돌봄 노동 등 우리가 수행하는 많은 일들은 ‘여자들의 일’이라고 일컬어지던 노동인 동시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치 없는 일’이라고 낙인을 겹쳐 찍어왔던 노동”이라며 “고된 노동 강도와 저임금에 퇴직자가 속출하고 신규 채용은 빈자리조차 채우지 못해 노동 강도가 상승하는 악순환의 현상은 정당한 노동 가치 인정 없이 힘겹게 학교의 빈 곳을 채워왔던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들은 “신학기 총파업은 비단 임금급심의 승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성 노동자들에게 대한 차별을 깨뜨리는 파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선희기자

최근 5년 들불 179건... 절반 봄철 발생

소방본부 '화재주의보' 발령 예방활동 강화

최근 5년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들불의 절반가량이 건조한 봄철(3~5월)에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제주소방안전본부는 화재가 집중되는 봄철을 맞아 들불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도내에서 발생한 들불 사고는 179건이다. 또 이 기간 5명이 다치고 1억50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계절별로는 날씨가 건조한 봄철에 전체 들불 안전 사고의 43%가 발생해 가장 많았고, 이어 겨울철(12월~2월) 29.1%, 가을철(9월~11월) 15.6%, 여름철(6~8월) 12.3% 순이다.

지역별로는 서귀포시 동지역이 전체 들불 안전 사고의 39.7%(71건)를 차지해 가장 비중 높았

다. 재산 피해액 기준으로는 서부 읍면지역이 58000여만원으로 전체의 32.3%로 가장 피해가 컸다.

들불 사고 원인은 쓰레기 소각, 불씨 방치, 담배꽂초 투기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86%(154건)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발생 장소는 과수원이 66.5%(119건)로 가장 많았다.

올해 들어서도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에서 농업 부산물과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번져 삼나무 45그루와 감귤나무 10그루, 비료 30포대가 불에 탔다. 앞서 지난해 3월에는 서귀포시 하원동에서 폐잡곡을 태우던 중 바람에 불티가 날려 야초지(660㎡)와 소나무 46그루, 잡목 20그루를 불에 타나 2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2공항 주민투표 부쳐야” 참여자치연대 어제 성명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동의한 환경부와 속전속결로 제2공항 기본계획을 제시한 국토교통부를 향한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참여자치연대는 8일 발표한 성명에서 “제주도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2공항 사업을 강행하는 국토교통부를 규탄한다”면서 “도민 자기결정권을 위해 제안한 주민투표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환경부를 향해서도 “국립생태원 등 전문기관의 부적합 의견에 대해 환경부는 구체적 근거 없이 무시했다”며 “막무가내식 제2공항 강행은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에 이은 두 번째 폭거”라고 비판했다.

참여자치연대는 “제2공항이 강행되면 제주의 환경, 미래, 공동체는 파괴될 것”이라며 “제주도는 자체적인 전략환경영향평가 검증은 진행하고, 도민결정권 확보를 위해 즉각 국토부에 주민투표 요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기자



운동 핫플레이스 한라수목원 포근한 날씨를 보인 8일 제주시 연동 한라수목원에 많은 시민들이 나와 운동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국민이 들려주는 병역 이야기 병무청, 6월 30일까지 공모전

제주지방병무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병역 이행 모범 사례 등 '병역 이야기'를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공모 주제는 ▷병역 이행 에피소드 ▷병역 이행 모범사례 및 응원 ▷공정 병역 ▷사회복무 등 병역 전반에 대한 이야기다. 영상과 웹툰 2개 부문으로 나눠 공모한다.

영상은 일반부와 학생부로 구분되며 분량은 15초 이상 3분 이내다.

이상민기자

웹툰은 스토리가 있는 만화 형태를 8컷 이상 제출하면 된다.

한편 병무청은 병역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해마다 병역이야기 공모전을 하고 있다.

이상민기자

최신 감귤 묘목 생산 전문업체

국내육성

전망 좋은 신품종 감귤 만감류등 각종묘목을 선별하여 최상의 상품을 공급해 드립니다.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 윈터프린스** 차별화된 맛과 향, 껍질 벗김이 쉬워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만감류. 연내수확 가능한 만감류 과일시장의 새로운 강자!
- 탐나는봉** 미국에도 2019년 식물특허 등록원료 색상이 진하고 당함량이 높고 식감이 우수. 기존 한라봉(부지화)보다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 품종.
- 사라향** 껍질 표면이 매끈하면서 두께가 얇으며 기존 천혜향보다 과육 밀도가 높으며, 2월 중순 성숙하며 과즙이 풍부하면서 고유의 향기가 있음.
- 하레조생** 조숙 온주밀감으로 기존 공전조생보다 같은 시기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아 11월 고품질 감귤을 생산 출하할 수 있는 품종.
- 제라몬** 향량 및 높아 향기가 진한 레몬 품종 내한성이상대적으로 강한 건로 평가되는 품종.
- 미니향** 소과형(30g내외) 감귤로 당도가 매우 높으며, 기존 품종과는 차별화된 고품질 품종.

과수농가 보급품종(1.3만본)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공천, 흥진, 카리향, 신화홍(붉은색 감귤)

가정원예(조경수) (2~7만본) 허귤, 팔삭, 세이늘, 금귤, 당유자, 아마나스, 미니몬, 국내산 탕자묘목 판매 (문의: 010-822-2202-3)

❖ 제주한라농원 감귤류묘목 전시판매장 개장! ❖ 1년생 규격묘, 2~5년생 일반묘, 포트묘, 화분묘 분양

사전에약 주문생산 탕빛1호, 선경, 설봉미, 미니몬, 무봉

제주한라농원은 (사)한국과수농협과 협회 우수업체이며, 우수신품종을 농촌진흥청 국유품종보호(통상실시권)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판매하는 중요전문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 010-4736-2479 / 010-6500-2329
 종자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1(수산리735)

2023 고소득 추천 묘목

두름	민두름 참두름	가시 없는 민두름, 참두름, 정강두름은 불부터 가을까지 수확
포도	루비로망	직경이 거봉포도 크기의 2배 (3cm, 무게20g, 당도 18브릭스 이상)
감	감풍, 원추 태추단감 슈퍼대봉	신품종 추위에 강하고 슈퍼단감 배 맛이 나는 단감 중에 최고! 대봉중에 맛이 뛰어나 식재를 많이 합니다.
염나무	민염나무 가시없는 염나무	가시 없는 민염나무 가시 있는 것보다 수확이 2배가 나옴, 효능이 같습니다.
호두	신품종 호두	주기결실, 열매가 크고 속이 짙으면서 기피가 알아 손으로도 잘 부서집니다.

사과, 신품종 호두, 신품종 유실수 등 품종이 다양합니다. ※2023년 인기 품종으로 조기 품종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무는 “감을농원”과 상담하세요! 묘목 식재 및 제배 관리까지 무료교육, 무료상담해 드립니다. **휴경지 노는땅 상담해드립니다.**

감을농원 | 묘목상담: 010-3121-7676 | 문의전화: 053-856-1144
 경북 경산시 889명 화성로25 / 남해 312-3121-7676-91(매곡우.정동해)

허가번호 18-제주2022-20-03

감귤묘목

유라조생	2~3년생
천혜향	3~5년생
황금향	3~5년생
한라봉	3~6년생
남진해	3~4년생
성전온주	3년생
하레조생	3년생
탐라봉	3년생
윈터프린스	3년생
감풍	3년생
진지향	3년생
탱자묘	1년생

한림종묘사

010-8820-5769
 종자관리사 010-3690-2453